

보도자료

제목	백남준아트센터,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소장품 담은 2026 달력 공동 제작		
문의	행사 및 취재 : 김지수 학예연구사 t.031-201-8542 m.010-6750-0450		
배포	2025. 12. 18. (목)	쪽수	총 2매

백남준아트센터,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소장품 담은 2026 달력 공동 제작



사진: 하나금융그룹 제공

- 백남준아트센터-하나금융그룹, 2026년 달력 공동 제작
- 백남준아트센터 소장품 이미지 및 핵심 문구를 큐레이션하여 백남준의 작품과 사유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
- 공공미술관-민간금융기업 문화협력의 새로운 모델 제시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박남희)는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2026년 달력을 공동 제작했다. 이번 달력은 백남준아트센터가 소장한 백남준의 작품과 '백남준: 말에서 크리스토까지'(에디트 데커-이르멜린 리비어 편, 백남준아트센터 발행)에 수록된 백남준의 글과 및 인터뷰 어록 등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예술가의 이미지와 사유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일상 속에서 백남준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미술관과 금융기관의 협력 프로젝트다.

이번 달력은 단순한 작품·문구의 나열이 아니라, 각 월과 계절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작품과 텍스트를 염선하여 구성한 큐레이션형 디자인이 특징이다. 월별·계절별 맥락에 맞게 이미지를 선별하고, 이에 조응하는 글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이미지와 문장이 달력이라는 매체 안에서 서로의 의미를 확장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제작은 백남준 서거 20주기를 맞아 백남준아트센터와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추진한 협력 프로젝트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으며, 이번 협업으로 백남준의 작품 세계와 예술적 가치가 더 넓은 공동체와 공유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양 기관은 기획 단계부터 소장품 이미지 활용, 어록 선정, 전체 구성 방향을 긴밀히 협의해 달력을 완성했다.

박남희 백남준아트센터 관장은 "달력은 누구나 매일 마주하는 사물이지만, 그 안에 예술가의 이미지와 언어가 담기는 순간 새로운 경험이 열린다"며 "예술기관과 금융기관의 협력을 통해 백남준의 예술정신이 일상 속에서 더 넓게 호흡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미술관 관람 경험이 전시 공간을 넘어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배포 이벤트도 마련했다.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백남준아트센터 방문객에게 하루 50부씩, 총 150부의 달력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